

남아공 월드컵 D-9

허정무호 최종 엔트리 23명

투톱 '박주영-염기훈'

안정환 조커... 베스트 11 윤곽
 박지성·이청용 좌우 미드필더



축구대표팀 공격수 박주영(AS도나코)의 짝은 결국 염기훈(수원)으로 낙점됐다.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도전에 나선 한국 축구 대표팀의 태극전사 23명이 가려지면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베스트11의 윤곽도 드러났다. 특히 오는 12일 남아공 포트엘리자베스 벨스만벨라 베이 스타디움에서 치를 그리스와 대회 조별리그 B조 첫 경기에 출전할 선발진은 허정무 감독의 최대 고민이었던 공격수들이 정리되면서 사실상 굳어진 모습이 다. 먼저 대표팀의 주 포메이션인 4-4-2의 최전방 투톱은 박주영과 염기훈이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허정무 감독은 최근 대표팀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지적하면서 남아공 월드컵 본선 진출에 큰 힘을 보탤

이근호(이와타)를 제외하는 결단을 내렸다. 대신 막내 이승렬(서울)을 최종엔트리에 넣었다. 대표팀 공격수는 박주영과 염기훈, 이동국(전북), 안정환(다산), 이승렬 등 다섯 명이다. 안정환은 후반 조커 자원이자, 이승렬은 최근의 상승세가 무섭지만 큰 경기 경험이 적어 허 감독이 월드컵 본선에서 선발로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 감독이 뒷근육을 다져 재할 중인 이동국은 그리스와 1차전에 뛰기 어렵다. 결국 그리스와 1차전은 박주영과 염기훈이 선발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미드필더는 사실상 최종엔트리 확정 전에도 베스트 11이 확연히 가려진 포지션이다. 좌·우측면 미드필더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서 뛰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불탄), 중앙 미드필더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김정우(광주)와 기성용(셀틱)이 그리스와 1차전뿐만 아니라 본선 내내 선발 출전할 공간이 크다. 포백 수비진의 좌·우 풀백은 이영표(알 힐랄)와 차두리(프라이부르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왼쪽 풀백 이영표는 김동진(울산)과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다. 차두리는 경쟁자인 오범석(울산)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있는데 힘과 체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그리스와 1차전에서는 차두리가 허 감독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다. 중앙 수비수는 조용형(제주)-이정수(가시마) 조합이 주축이다. 그리스와 제공권 싸움을 염두에 두고 최근 이정수-곽태휘(교토) 조합을 실험해 왔는데, 곽태휘가 불의의 부상으로 귀국길에 오르면서 결국 손발을 맞춰온 시간이 많았던 조용형-이정수 라인에 무게가 실린다. 일찌감치 이문재(수원)-정성룡(상남)-김영광(울산)으로 최종엔트리가 확정된 골키퍼들의 경쟁에서는 최근 정성룡의 기세가 무섭지만 대표팀 만원인 이문재가 골문을 지킬 것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이름 포지션
 생년월일/출생지
 출신학교/현 소속
 신장/체중
 A매치 경력/득·실점
 월드컵 출전 경력

이문재 GK
 1973. 4. 26/충북 청주
 청주상고-경희대/수원 삼성
 182cm/90kg
 130경기/113실점
 1994년, 2002년, 2006년

정성룡 GK
 1985. 1. 4/제주
 서귀포중-서귀포고/성남 일화
 190cm/86kg
 15경기/6실점
 없음

김영광 GK
 1983. 6. 28/전남 고흥
 광양제철고-현대/울산 현대
 184cm/85kg
 14경기/10실점
 2006년

이영표 DF
 1977. 4. 23/강원도 홍천
 안양공고-건국대/알 힐랄
 177cm/66kg
 112경기/5골
 2002년, 2006년

김동진 DF
 1982. 1. 29/경기도 동두천
 안양공고/울산 현대
 182cm/74kg
 61경기/2골
 2006년

조용형 DF
 1983. 11. 3/인천
 부평고-고려대/제주 유나이티드
 182cm/71kg
 31경기
 없음

김형일 DF
 1984. 4. 27/인천
 부평고-경희대/포항 스틸러스
 187cm/83kg
 2경기
 없음

이정수 DF
 1980. 1. 8/경남 김해
 이천고-경희대/가시마 엔트러스
 185cm/76kg
 24경기/2득점
 없음

강민수 DF
 1986. 2. 14/서울
 고양고/수원 삼성
 186cm/76kg
 31경기
 없음

차두리 DF
 1980. 7. 25/독일 프랑크푸르트
 배재고-고려대/프라이부르크
 181cm/79kg
 46경기/4골
 2002년

오범석 DF
 1984. 7. 29/울산
 포철공고/울산 현대
 181cm/77kg
 37경기/2골
 없음

박지성 MF
 1981. 2. 25/전남 고흥
 수원공고-명지대/맨체스터 Utd
 178cm/73kg
 88경기/12골
 2002년, 2006년

이청용 MF
 1988. 7. 2/서울
 도봉중/불탄 월드컵대표
 180cm/69kg
 23경기/3골
 없음

기성용 MF
 1989. 1. 24/광주
 금호고/셀틱 FC
 186cm/75kg
 21경기/4골
 없음

김정우 MF
 1982. 5. 9/경기도 부평
 부평고-고려대/광주 상무
 183cm/71kg
 54경기/4골
 없음

김남일 MF
 1977. 3. 14/인천
 부평고-현대/툼 톰스크
 180cm/75kg
 92경기/2골
 2002년, 2006년

김재성 MF
 1983. 10. 3/경기도 수원
 수원공고-아주대/포항 스틸러스
 180cm/70kg
 7경기/2골
 없음

김보경 MF
 1989. 10. 6/서울
 신갈고-홍익대/오이타 트리니타
 178cm/73kg
 6경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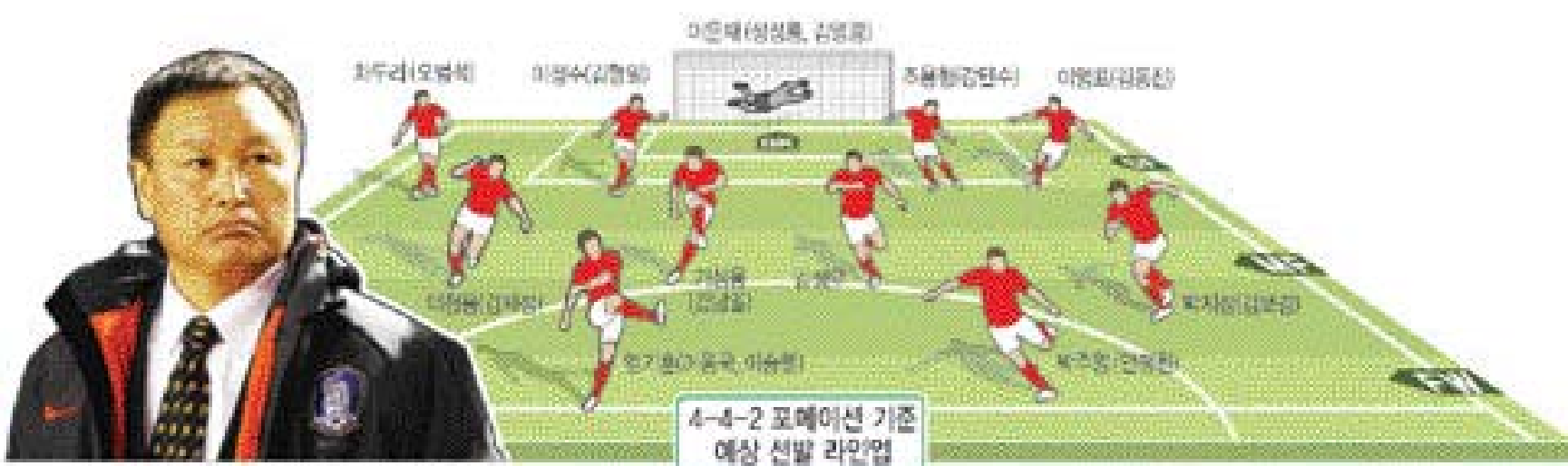
박주영 FW
 1985. 7. 10/대구
 청구고-고려대/AS 모타코
 182cm/76kg
 40경기/14골
 2006년

안정환 FW
 1976. 1. 27/경기 파주
 서울기계공고-아주대/다산 스포츠
 177cm/73kg
 70경기/17골
 2002년, 2006년

염기훈 FW
 1983. 3. 30/충남 논산
 강경상고-호남대/수원 삼성
 182cm/80kg
 33경기/3골
 없음

이동국 FW
 1979. 4. 29/경북 포항
 포항제철고/전북 현대
 187cm/83kg
 83경기/25골
 1998년

이승렬 FW
 1989. 3. 6/경기도 부천
 신갈고/FC 서울
 183cm/72kg
 8경기/3골
 없음



감독 허정무 생년월일 1955.1.13 주요경력
 1974~1986년 축구 국가대표 선수 1988년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 2000년 올림픽 대표팀 감독
 1980~1983년 P94 해병포병 선수 1984년 국가대표팀 코치 2007년 12월~현재 국가대표팀 감독

한국대표팀 향후 일정 6.4 수원 삼성 6.5 남양주 일화 6.11 남아공 월드컵 1차전 6.12 그리스전 6.17 남아공 월드컵 2차전 6.23 남아공 월드컵 3차전

허정무호, 이동국 발탁 약될까

타깃형 스트라이커...한방 기대

'계류' 신세였던 이동국(31·전북)의 최종 엔트리 낙점은 한국의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목표에 약(藥)이 될까 아니면 독(毒)이 될까. 허정무 감독은 1일(한국시간) 예정됐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 명단 23명을 발표하면서 3명의 '살생부' 명단에서 이동국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비운의 프리킥을 달고 다녔던 '라이언킹' 이동국이 남아공의 희망봉으로 가는 티켓을 얻는 순간이었다. 허 감독이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최종 엔트리 발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이동국을 선택한 허정무 감독의 내심은

다양한 공격 옵션에 대한 갈증 때문으로 보인다. 이동국 발탁 논란의 초점은 몸 상태가 100%까지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남아공에 굳이 데리고 가야 하나에 맞춰져 있다. 보름 전 에콰도르와 평가전 때 허 감독이 이동국은 예비 명단 26명에게 들어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에 동행했지만 이후 실전 경기에 한 번도 투입되지 않았다. 이동국이 6월12일 그리스와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 출격할 수 있을지는 허정무 감독마저 비판적으로 보고 있

다. 허정무 감독은 "(그리스전 출전이) 다소 힘들겠지만 두 번째 경기부터는 가능하다고 메디컬, 피지컬 쪽 의견이 모아졌다. 1주후부터는 100% 팀 훈련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6월17일 아르헨티나, 같은 날 23일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2, 3차전에 활용하려고 이동국을 뽑았다는 이야기다. 그리스전까지 한 달 넘게 실전경기에 한 번도 뛰지 않은 선수를 세계 최강 공격수들이 즐비한 아르헨티나, 최고의 탄력과 스피드를 자랑하는 나이지리아



경기에 전격적으로 기용한다는 발상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타깃형 스트라이커로서 상대 수비수를 달고 다니는 한편 해딩으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는 건 이동국의 장점이지만 그가 월드컵에서 자신을 낙점한 허정무 감독의 기대에 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엔트리 기습 발표 왜? "명단 새 나가면 팀분위기 어수선"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 엔트리 23명을 애초 1일 오후 4시(이하 한국시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정무 감독은 반나절이나 앞선 1일 오전 4시에 급하게 명단을 발표했다. 게다가 허 감독은 대표팀 숙소에서 4km 정도 떨어진 한국 취재단 숙소까지 직접 찾아와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다. 허 감독은 "내일 아침 기

자회견 전에 명단이 퍼져 나갈 수도 있어 먼저 발표하게 됐다"고 기습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 선수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탈락 사실을 전하고 나면 가족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미리 명단이 새 나갈 수 있어 이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표팀 분위기는 좋은 편은 아니다. 지난달 30일 벨라루스와 평가

전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0-1로 패했고, 이 경기에서 중앙수비수 곽태휘(교토)가 왼쪽 무릎 인대를 다쳐 남아공 월드컵 출전 꿈을 접었다. 이런 가운데 허 감독은 최종엔트리까지 미리 새 나가면 팀 분위기가 걸잡을 수 없어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자칫하다가는 4일 오전 스페인과 평가전까지도 영상이

이해질 수 있어 한시라도 빨리 팀을 정비하려고 했을 수 있다. 결국 갑작스럽게 최종 명단을 발표하게 되면서 여러가지가 뒤죽박죽이 됐다. 탈락 선수들과 명단은 기자회견 이후에 이뤄졌다. 허 감독은 엔트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23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 26명 모두 남아공까지 갈 것이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결국 "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탈락 선수들의 팀에서 돌려보내 주길 원하고 있다"며 세 명 모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